

장애우와 함께 하는 '장애우 사장님'

■ 광주 '대흥가방' 사장 신정후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버거워보이는 장애인들에게 '좌절'과 '시련'이 일반인의 고통으로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 시기를 잘 극복해 낸 장애인들이 더 큰 박수를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가, '말아톤'의 배형진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 '대흥가방' 신정후(63·지체장애 3급) 사장. 신씨는 9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후 50년 넘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다. 남다른 점이 있다면, 장애에 연연하지 않고 일반인 못지 않은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현재도 주민자치위원·바르게살기위원·서구 장애인협회 회장 등을 맡으며 적극적으로



'대흥가방' 신정후 사장이 차량용 CD케이스를 만들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가방공장서 일하다 회사 차려
직원 9명 모두가 지체 장애우
각종 봉사 등 사회활동도 활발

로 리더십을 발휘한다. 지난 1972년 이후 광주의 고아원·보육시설 등에 무료로 가방을 전달하는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고교 졸업 후 한때 가방공장 종업원으로 일했던 그는, 경험을 살려 지난 1964년 가방 공장을 차렸다. 하지만 말이 사장이지, 사회의 편견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주문을 받으려 거래처를 찾으면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아플뻔 되는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모욕적인 반말을 듣기도 했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지만, 그 시절만큼은 견디기 힘들어 몇 번 손뚱을 굶기도 했다고 한다.

"원래 다리가 조금 불편했는데, 23살 때 골수염을 앓으면서 더 악화됐어요. 걸음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는데, 집안에서 반대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 더 이를 악물고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동차 CD 케이스·기념품 가방 등을 주문생산하는 '대흥가방'은 연간 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한 점은 공장 종업원 9명이 모두 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다. 꿈이 있다면 서구에 작업장·교육실·운동시설을 갖춘 장애인복지관을 만드는 것. 서구지역 장애인들의 경우 복지관이 없어 멀리 운암동까지 가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신씨는 "지금까지 배운 가방 만드는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 역할"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고용을 20여 명까지 늘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저는 길을 걸을 때 유리나 거울에 비친 제 걸음걸이를 보지 않아요. 정신과 몸은 누구 못지 않게 건강한데 단지 다리를 약간 전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등산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남들이 보기에 불편해보일 뿐이지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지역 법조계 '고법 상고부' 백지화 반발

전국 5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이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지역 법조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희)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4개 지방도시의 고법 상고부 설치안을 백지화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중앙 특권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사법제도 발전과 법률문화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광주고법 배석판사들도 이날 긴급 모임을 갖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의 원안과 같이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가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대법원이 종전 견해를 갑자기 변경하게 된 경위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 등은 거리가 먼 지방 주민들의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이는 등 소송 편의를 위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을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 상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백인호 사장은 20일 창사 54주년 기념식에서 "지역민이 믿을 수 있는 신문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본사 창사 54주년 기념식

광주일보사는 20일 오전 11시 사옥인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무등빌딩 3층에서 백인호 사장 등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4주년 창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사원·모범지사장 및 지국장·우수독자 및 배달학생 등 모두 35명에게 상장과 상품

이 수여됐다.

백인호 사장은 기념사에서 "인터넷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기사가 필요하다"면서 "지역민들이 믿고 찾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희기자 jhlh@

오늘은 봄 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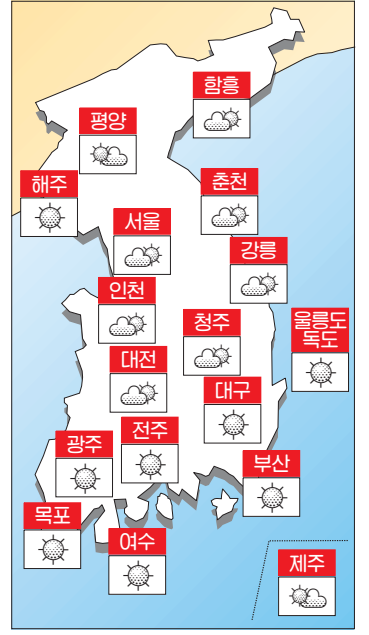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4월 21일

(음 3월 24일)



광주	맑음	5~18℃
전주	맑음	6~16℃
대구	맑음	6~17℃
부산	맑음	6~17℃
서울	맑음	4~19℃
인천	맑음	4~17℃
대전	맑음	3~19℃
충주	맑음	4~19℃
청주	맑음	4~16℃
경주	맑음	6~19℃
안동	맑음	4~18℃
포항	맑음	1~19℃
울릉도	맑음	3~18℃
독도	맑음	3~18℃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과속 2.0~4.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과속 2.0~4.0m
목포 밀물 < 07:40 썰물 < 13:30
여수 밀물 < 02:37 썰물 < 09:38

▲해돋이 05:53 ▲해질 19:09 ▲달돋이 01:50 ▲달질 11:35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날씨						
최저/최고	9/12	10/17	8/21	8/23	9/23	9/17

광주 6개 전문대 특성화 추진

국비 137억원 신청

광주시는 내년 전문대학 특성화사업과 관련해 6개 대학(16개 사업)이 국비 137억원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6개 대학은 광주보건대, 기독교대, 동강대 등이며, 사업별로는 영역별 특성화 사업 6개, 전문직 교육지원 사업 5개, 협약학과 사업 5개 등이다.

신청된 사업들은 이달말 광주·전남 지역혁신협의회 검토와 다음달 중앙평가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

년 3월부터 2년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각 사업단이 중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액의 3% 범위 내에서 대응투자를 하기로 했으며 행정적으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는 송원대, 조선이공대, 기독교대, 서강정보대, 광주보건대, 동강대 등 광주 시내 6개 전문대학이 특성화사업과 관련해 국비 105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ws@kwangju.co.kr

Afterwork Lifestyle

새로운 곳에서 나를 발견하는 즐거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즐거움을 만날 때
나만의 새로운 저녁타임은 언제나
공유하고 싶은 특별한 즐거움과 여유를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Life Style 현대백화점 HYUNDAI

가전/가구 당일 10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10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5만원 현대상품권	20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10만원 현대상품권
30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15만원 현대상품권	50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25만원 현대상품권

기간 4/22(금)~27(목) 총정점수 8을 사용포인트스프링 - 한 계약 필수임을 분명히 상품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현금/카드/신용카드 결제 시 5%에 한하여 가전 구매시 구매금액의 50%는 인출됩니다
*본인만 수령 가능합니다. *다른 행사와 중복 혜택이 없습니다. *단, 소량가능은 10%로 인출됩니다

BLAZA 스포츠아웃도어 BIG브랜드 종합전

기간: 4/22(금)~25(화)

참여브랜드: 리복/프로스텍스/블랙야크/리무미/버그하우스/자

리복 트러닝화	25,000~49,000원
트레이닝복 세트	59,000~70,000원
프로스텍스 트레이닝복	40,000~59,000원
등산조끼	15,000원부터
블랙야크 기능성 재킷	30,000원
리무미 기능성티	48,000원
힐라 티셔츠	19,000원
헤드 남/여 트레이닝복(상/하)	각 70,800원